



비전대, 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재할전문 물리치료사 양성반 캡스톤디자인 참여 학생들이 최근 조선대에서 열린 (사)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AI를 융합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게임콘텐츠, AI로봇, 인포테인먼트, 라이프케어 분야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논문 발표팀의 임소정 학생은 "산업체와 함께하는 캡스톤디자인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임상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팀원들과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임상시험을 통해 다양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승훈 담당교수는 "LINC 3.0 사업의 지원으로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해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기자

남원소방서, 불조심 포스터 공모 수상작 선정

남원소방서는 2024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참가자에게는 남원소방서 기념품,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제7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지난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남원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중요성과 화재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했으며, 총 127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최우수상은 월락초 4학년 강민서 학생의 작품으로, "우리의 실수로 아름다운 숲이 한순간에 불지옥"이라는 주제를 독창적으로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형철 예방안전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직접 생각하고 표현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장명동 기업들,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정읍시 장명동 기업들이 추운 겨울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

드림정보시스템(대표 황병형), 개미부동산(대표 이희수), 꿈꾸는 건축사(대표 권세란), 세진건축사(대표 박세진)는 지난 2일 장명동에 성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들의 기부는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기탁자들은 장명동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큰 힘이 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신평동지사협, 동절기 겨울이불세트 지원

김제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호길)가 지난 2일 신평동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0세대에 겨울이불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불 나눔은 신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협의체 위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이불을 전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이웃의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불을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덥고 길었던 여름이 끝나고 갑자기 일교차가 커져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집으로 찾아와서 안부도 묻고 따뜻한 이불까지 나눠줘서 행복하다"며 밝은 표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호길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가 되길 바라며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형호 신평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위해 함께 해주신 지사협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사협과 머리를 맞대고 참신한 사업을 기획해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한 신평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1호 전달'

전북자치도 명예회장 김관영 도지사,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모금 시작 선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삼훈)는 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명예회장인 김관영 도지사가 도청에서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2023년 적십자회비 모금 시작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적십자 회비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모금된 성금은 도내 재난·재해 구호활동, 취약계층 지원, 안전교육 사업 등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인도주의 활동의 지속을 위해 도민분들이 적십자 회비 모금에 더 관심가지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2025년도 적십자회비는 12월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집중모금을 실시하며, 금융기관 수납, 인터넷·ARS,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넷·ARS,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진안홍삼연구소, 제7대 현동윤 연구소장 취임

재단법인진안홍삼연구소 제7대 연구소장으로 현동윤(玄東允, 63세) 농학박사가 지난 12월 2일 취임했다.

현동윤 신임 소장은 전북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농학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9년부터 농촌진흥청에 재직하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 총괄팀장과 인삼특작부 인삼과장을 역임하는 등 연구와 행정 경력을 두루 갖추고 있고 관련 산업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험도 갖고 있다.

이번 연구소장 선정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소장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및 이사장(진안군수)의 최종 검토 승인을 받은 만큼 실력이 검증되고 있고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쳤다.

현동윤 신임 소장은 취임 일성으로 "진안군 인·홍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공적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진안 인삼·홍삼·향토 자원의 지속 가능한 소비 창출 기반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의 산·학·연·관 등과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국내 유일의 홍삼 연구기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제6회 통일김치 김장 나눔 행사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이북도 전북특별자치도사무소와 전북도청 야외광장에서 '제6회 통일김치 김장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이북 실향민과 북한이탈주민, 전북 도민이 하나 되어 화합과 통일을 염원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창석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이북5도 전북 연합회 봉사단, 전북연합회 부녀회, 전북달북부녀회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황해도 실향민 2세로 활동 중인 목영숙 전북 이북도연합회 명예회장과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1,000포기의 김치를 담갔으며, 이를 전북의 이북도민과 소외계층, 북한이탈주민 등 20가구에 전달했다.

조성을 이북5도 전북특별자치도사무소장은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김장을 함께하며 실향의 아픔을 달래는 뜻 깊은 시간이었으며, '이 행사가 지역사회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지원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창석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은 "통일김치는 한반



도 평화를 염원하고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전북 도민이 하나가 되기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청사 내 위치한 이북5도 전북특별자치도사무소는 도내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원상담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인 만남과 행사를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무주 안성면이장협의회 등, 사회단체 이웃사랑 실천

무주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지역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 3일 안성면이장협의회 등 3개 사회단체가 무주군청을 방문해 희망 2025 이웃사랑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부는 안성면이장협의회(회장 김진명), 안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창호, 김일중), 안성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국)가 함께했다.

기탁된 성금은 노블레스오블리주 무주운동·반디나눔 지정 기탁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특화사업비로 배분될 예정이다. 김진명 회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김창호 위원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나눔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이재국 위원장은 "작은 온정이나마 사회취약계층의 추위를 녹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와이즈맨 혼불클럽, 남원 노암동서 짜장면 나눔

남원시 노암동 관계자는 3일, 국제와이즈맨 혼불클럽(회장 이성운)에서 동 취약계층을 위해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혼불클럽 회원 15명이 노암동민 250명에게 직접 요리한 맛있는 짜장면을 드시도록 했다.

이성운 회장은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차미화 노암동장은 혼불클럽에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노암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기전대 유아교육과, 자원봉사자센터 이사장 표창

전주기전대학교 유아교육과는 3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전주시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전주시자원봉사자센터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대회는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그동안 나눔과 온정을 실천해 온 봉사자들을 발굴하고, 노고에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로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이끌어 온 자원봉사 수요처와 단체, 봉사자에 표창이 수여됐다.

이날 수상자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온 전주 시민과 배워서 남주자'를 실천해 온 재능봉사자 127명,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처 및 자원봉사 발전과 변역을 위해 노력해 온 12개 기관·단체다.

특히 올해 시상식은 탄소중립실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모범을 보인 기관 1곳과 개인 2명이 선정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이경재 교수, 전주보호관찰소 공감인문학 특강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이경재교수(전, 경영대학장)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전주 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열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연수에서 인문학을 통한 자기성찰과 공감가짐'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법무부 산하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연에서 이 교수는 재미있는 자서전들을 통해 시와 인문학을 공감, 소통과 접목하여 강의를 이어갔으며 많은 웃음을 자아냈고 동시에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도 가졌다. /이만호 기자



남원 왕정동,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홍보 나서

남원시 왕정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9일, 이마트 남원점에서 직원들이 주도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및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왕정동 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장점, 및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의 중요성에 대해 방문객들과 고객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필요성을 알리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이평면 이정훈씨, 이웃돕기성금 300만원 기탁

정읍시 이평면 파란하늘목장 이정훈 대표는 3일 이평면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평령리에 거주하며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대표는 수년째 기부활동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찬휴 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